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2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브렉시트 혼란 틈타 '新IRA' 준동
 - 2.1 현지 언론은 '新아일랜드공화국군'(NIRA) 테러범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틈타 대학살을 벌이려 한다는 공포가 퍼져 있으며, 이들이 아일랜드공화국군(IRA)*이 반납한 무기를 탈취 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영국·아일랜드에서 ISIS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
 - * NIRA는 '18.12.19 북아일랜드 런던데리 법원 건물밖에서 차량폭발테러 자행
- 佛,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범에 총기 전달한 가족 3명 기소
 - 2.2 AFP 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총격테러사건 범인 「셰리프 셰카드」의 가족 3명에 대해 권총(8mm) 제공 및 테러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
 - * 佛 당국은 '18.12.17 범인의 친척 1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바 있음
- 스페인, 재소자들에게 거액 제시하며 테러실행 요구한 일당 적발
 - 2.4 스페인 내무부는 마드리드 인근 교도소 등 2곳에서 같은 재소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고 출소 이후 테러공격을 제안한 재소자 8명*을 적발했다고 발표
 - * 대부분 모로코 국적자들로 ISIS가 돈을 보내줄 것이라며 기결수들을 유인

미주

- 美 트럼프 대통령, “다음 주에 ISIS 영토 100% 탈환” 선언 예고
 - 2.6 워싱턴 D.C에서 열린 ‘反ISIS 국제연대’ 장관회의에서 ISIS가 점령한 아주 작은 일부지역이 위협할 수 있다면서도 ISIS 점령지를 100% 탈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강조

○ 美 국방부, 시리아 철군 후 'ISIS 재건 가능성' 우려

- 1.31 美 국방부 감사관실은 '시리아內 미군 철군시 ISIS가 6~12월 이내 재건 가능'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곧 제출할 예정인데, 이는 ISIS가 게릴라 전술과 온라인 선전을 지속하다 기회를 노려 비활동·잠복상태의 ISIS 추종자들을 집결하여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치

* 美 국방부는 시리아·이라크에서 활동하거나 잠복한 ISIS 조직원을 2~3만명으로 추정

○ 美 언론, ISIS의 '사브르(sabr)' 전략 분석 보도

- 2.6 美 언론은 ISIS가 약 1년 반 동안 영토방어보다 글로벌 게릴라전에 치중해왔는데, 구체적으로 각 지역 내에서 입지를 점진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출판물·시청각물을 통한 지지자 신앙심 강화 등 '사브르(sabr)' (아랍어로 '인내')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

아·태평양

○ 국가중요시설 주변 「불법드론 예방대책」 수립 필요성 제기

- 2.3 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적발된 원전 인근 불법 드론비행은 3건(각각 과태료 20만원 부과)이고, 공항 및 군부대 침입도 21건이 발생하였으나, 특별한 예방·제재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「불법드론 차단시스템」 마련을 촉구

○ 태국 이슬람 반군, 정부와 평화협상 잠정 중단

- 2.5 현지 언론은 정부와 '딥사우스'* 이슬람반군 간의 평화협상과 관련, 정부대표 「우돔차이」 장군이 회담을 거부하고 개별면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군측이 반발하여 정부측에 인사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3·24 총선 전까지 모든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보도

* 태국內 무슬림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남부 나라티왓·알라·빠따니·송클라주

영국 다우닝街(총리공관) 박격포격

○ '91.2.7 아일랜드 공화국군 임시파(PIRA)*가 영국 총리공관을(런던 다우닝街 10번지) 박격포 공격

*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무장테러 단체로 해외의 영국공관 폭파·영국 정치인 암살 등을 자행하였으나, '05년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장해제 선언

<다우닝街 10번지>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상징으로 1732년 이후 총리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, 외관은 가정집과 비슷하며 인근에 재무장관 공관(11번지), 하원 원내대표 공관(12번지) 등이 위치

○ PIRA는 승합차(포드 밴)에 사제 박격포를 설치하여 다우닝街 10번지에서 약 180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박격포 3발을 발사

- 당시 걸프전 논의를 위해 공관에 모인 존 메이어 총리(1990~1997)와 내각을 대상으로 포격을 감행하였는데
- 한발이 뒷마당에서 폭발(2발은 불발)하여 경찰관 2명을 포함한 4명이 부상당하였으나, 공관의 방폭창 설비 덕분에 각료들은 무사

<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,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) >

- (목표) 필리핀 남부 지역에 이슬람 원리주의 독립국가 건설
- (핵심인물) 알 하지 무라드 이브라힘(의장)
- (활동시기) '78년 ~ '14년
- (활동지역)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, 술루제도, 팔라완 등
- (주요테러) '98.6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삼보앙가에서 기독교도 마을 공격(사상 26명), '00.5 마닐라 대형 쇼핑몰에 폭탄테러(사상 13명), '11.10 남부 민다나오에서 작전 중인 필리핀 정부군 공격(사망 41명)
- (최근동향) '14.3 MILF가 정부와 평화협상안을 타결, 무장투쟁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나, 과격파인 방사모로이슬람자유전사단(BIFF) 등이 MILF에서 분파하여 테러 지속